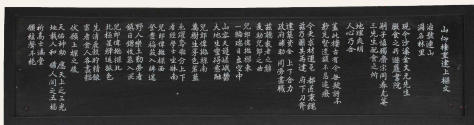


산양루중건상량문(山仰樓重建上樑文)

2006_미상(未詳)_35.0×135.0cm



산양루를 중건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한 상량문(上梁文)이다. 산양루는 2006년 서원의 자체 재원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건되었는데, 해당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山仰樓重建上樑文

治號連山洞名林里現今沙溪金文元先生服食之所避巖書院嗣子愼獨齋宋同春尤菴三先生配食之所地理爽明人心乃合蓋此樓古有今無疑訝不渺先賢遺額不忍遽廢今更求材運互 都匠秉繩茲乃圖其再建 府下刀斧建築資金 上下合力政府補助 同勞盡職茲聽衆老之辭爰助兒郎之曲兒郎偉拋樑東一輪瑞日出空中山容天護嵯峨鬱大地生靈得意融兒郎偉拋樑南萬樹生芽色若藍魚躍鸞飛分上下看經學士坐牀南兒郎偉拋樑西登豐稻菽入眸迷野人樂土勤勞者鑽日鎌收募入泥兒郎偉拋樑北北極星輝遙振色先消廩穀貯精糧富者貧人盡懿伏願上樑之後天佑神助 應天上之三光之載人和 備人間之五福祈高士滿堂願絃聲不絕

산양루중건상량문(山仰樓重建上樑文)

치호(治號)는 연산이요 동명(洞名)은 임리(林里)라. 이제 사계(沙溪) 김문원(金文元) 선생을 침식(服食)하는 돈암서원(避巖書院)이요 사자(嗣子) 신독재와 송동춘, 우암 삼선생(三先生)을 배식(配食)하는 곳이라. 지리(地理)가 상명하고 인심이 내합이라. 대개 이 누(樓)는 예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으니 의심이 적지 아니하니 선현이 남긴 현판을 차마 급히 폐하지 못하여 이제 재목을 구하고 기와를 운반하여 이에 그 재건을 도모한다. 도목수는 명통을 들고 부하는 칼과 도끼로다. 건축자금은 정부보조 상하가 힘을 합하여 같이 노력하고 직책을 다하네. 이에 여러 늙은이의 말을 듣고 아량 위 곡조를 듣는다.

아량 위 상량보 동쪽으로 벌리니 한 수레 바퀴 상서한 날이 공중에 나왔네. 천호의 산이 바로 동쪽에 올창하고 고대지에 생령이 뜻을 얻어 화하네. 아량 위 포량 남하니 만수가 싹이 나니 빛이 쪽 같네. 고기가 뛰놀고

솔개가 위아래로 날고 경서보는 학자가 책상 남쪽에 앉았네. 아랑 위 포랑 서쪽에 풍년 든 나락과 콩이 눈에 드려 아득하다. 들사람이 흠을 즐겨 근로하니 날이 다하도록 낮으로 거두고 저무니 잔흙에 드네. 아랑 위 포랑 북쪽에 북극성이 빛나 멀리 빛을 떨치네. 먼저 거친 곡식을 소비하고 정한 양식을 저축하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각각 정성을 다하네. 었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며 땅이 싣고 사람이 화합하도다. 천상에 삼광이 응하고 인간에 오복이 갖추었도다. 높은 선비가 집에 가득하기를 빌고 현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네.